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반석회

반석회

잘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19)

1995년 에디슨 한인성당의 초대 신부님 이셨던 최경용 베드로 신부님의 지도로 성당의 최 연장자 친교 그룹으로 "성우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우드브리지 성당에서 성베드로 사제의 의미를 본받은 반석회로 개명 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우여곡절 속에도 교우들의 협조와 주님의 보살핌으로 에디슨 한인 성당의 산역사나 다름없는 우리 반석회가 지금 까지도 굳건한 면모를 지켜 나올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반석회가 성당에 모범이 되는 단체로 영원히 지속될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 하며 교우들의 기도도 부탁 드립니다

- 황태진 필립보

민규란 엘리자벳

어느 명오열리던때 설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떡국 한그릇먹고 나이도 한살 더 먹고 이제 철도 들어야지.. 이제 고향도 넘긴 지금 이치를 분별하는 나의 잣대는 고무줄 자였을까? 하느님의 금자였을까? 백발이 눈에 거슬려 눈도 침침해지고 시끄러운 세상일도 주의하라 이 귀도 순해질 나이에 마음만은 색동웃임고 부모님께 현수하던 때와 다를바 없지만 하느님 뵈움날을 기대하기엔 아직도 부족하여 하느님의 자비심만 바랄뿐이다. 그래도내고향으로 돌아가 하느님 아버지 뵈움날만 바라며 오늘도 그리움 가슴에 안고 한걸음 한걸음 열심히 걸으려 합니다. 천주의 어머니 저희를위해 빌어주소서



엠블런스가 숙원이었던
병원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병기 베네딕도 유용희 올리어나
탄자니아 우엠바지역 방문선교 활동
지역병원에 엠블런스 기증.차고 신축지원외에 다량의 생필품 지원



연중
제 27주일

2022년
10월 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주님 탄생 예고>
프라안젤리코, 1433-34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하바쿱 예언서 1,2-3; 2,2-4 하바쿱 예언서 1,2-3; 2,2-4
- # 화답송 시편 95(94), 1-2, 6-7, 7, 7c-9(7c와 8c)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1,6-8, 13-14
- # 복음 환호송 1베드 1,25 참조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 복음 루카 17,5-10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미사지향 (연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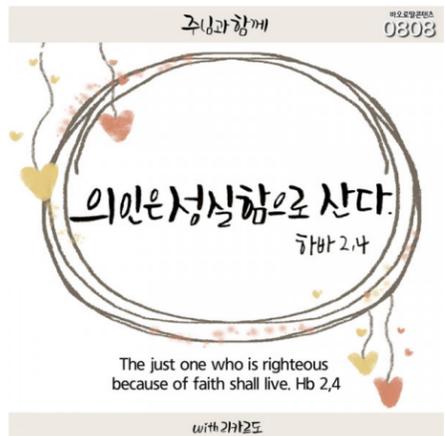
- 심진유 - 올드브릿지 구역, 박화성(헬레나), 정길예(프란체스카), 채미영(데레사)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이택면(예로니모) 신부님 - 안을봉(요셉) 가족, 변태용(요셉)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Olga Arocho - 송민화(비비안나)
- 김지영(유진) - 김 스텔라
- 이화자(마틸다) - 유 율리안나
- 윤영로(글라라) - 최정원(레지나)
- 이종우(도밍고) - 가족
- 정숙림(막달레나) - 가족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하준석(마태오) - 변태용(요셉) 가족, 손 유스티노, 박원종(본시아노), 최정원(레지나), 양영길(그레고리오)
- 하연승(요한) 가정 - 최정원(레지나), 양영길(그레고리오)
- 정영철(프란치스코) - 전 클라라
- 곽 율리아나 - 전 클라라
- 채미영(데레사) - 최정원(레지나)
- 이유패(체칠리아) - 채미영(데레사)
- 김정민(말셀리노) 가정 - 가족
- 이은숙(가브리엘라) - 가족
- 윤주은 - 카도너
- 임 세실리아 - 카도너
- 변상원(제임스) 가정 - 변태용(요셉) 가족
- 변상민(에드워드) 가정 - 변태용(요셉) 가족
- Rolando Arocho와 가족들 - 송민화(비비안나)
- 신설 성모의 꽃씨 Pr. 레지오 단원들 - 채미영(데레사), 최정원(레지나)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57명).....\$2,828
- 교무금.....\$1,580
- 이순재(9-12) 정영철(9-10) 전광수(9-10)
- 백상현(10) 최완준(7-9) 박애순(5-12)
- 최영찬(9-1) 임문수(10)



2차 헌금

- 10월 2일: 유틸리티

10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성당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커피 쿠폰 1장 구매시 \$2
- 커피 쿠폰 6장 구매시 \$10

로사리오 성월 성모님 성지 순례

- 일시: 10월 11일(화) 오전 8시 성당 출발, 11시 30분 미사, 오후5시 성당 도착
- 성지: 체스토호바의 성모님 (검은 성모 성화상) 펜실베이니아 주
- 주관: 꾸리아
- 대상: 모든 교우(선착순50명)
- 참가비: \$65 (아침, 점심, 버스비, 성지 봉헌금)
- 신청: 꾸리아 부단장 최현지(안토니아), 회계 한지혜(크리스티나), 사무장

교황님과 함께하는 2023 세계 청년 대회 I [포르투갈 리스본]

- 날짜: 2023년 7월 23일(일) - 8월 7일(월)
- 지도 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이상빈 알렉산델
- 장소: 포르투갈 리스본 (파티마 성모 발현지, 포르투
- 관광, 산티아고 순례길 포함)
- 대상: 12학년이상 현재 신앙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혼자 참여가능]
- 인원: 선착순 20명
- 참가비: \$3,500 (불포함: 산티아고 순례 4박 숙식비)
- 신청 문의: wydkoreannewyorkers@gmail.com
- 뉴욕 브루클린 한인공동체에서 주최하는 그룹으로 출발지는 뉴욕 JFK 공항입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반석회에서 성모공원 조성 기금으로 \$5,000을, 주일학교에 \$200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인(가브리엘) 형제님의 90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제 1독서 하바국 예언서1,2-3; 2,2-4

주님, 당신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당신께서 구해 주지 않으시는데 제가 언제까지 “폭력이다!” 하고 소리쳐야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재난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제 앞에는 억압과 폭력뿐 이느니 시비요 생기느니 싸움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일어 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1,6-8.13-14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7,5-10

그때에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루카 17,10

목주기도(로사리오) 성월을 맞아

1. 로사리오 기도(목주기도)의 의미

로사리오(Rosarium)는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로 목주 또는 목주기도를 가리킨다.

로사리오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도미니코 성인(1170-1221)이 선교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여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자, 성모님께서 나타나 목주를 주시고 목주의 기도를 널리 전하라고 하셨다는 설, 도미니코회 회원이 신앙의 진리를 연속하여 설교할 때 작은 주제가 끝날 때마다 주의기도와 성모송을 합송하였던 설교 방식에서 유래한다는 설, 12세기 문맹자들이 전례에서 시편의 귀절을 읽는 대신 주의 기도 150회를 3부분으로 나누어 암송하던 관습에서 발전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렇게 로사리오 기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 내에서 신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어 왔고 여러 교황들에 의해 권장되었다.

로사리오 기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정해진 것은 1569년 교황 비오 6세의 칙서에 의해서이다. 이 표준에 따르면 로사리오 기도는 염경기도와 묵상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염경기도로 주의기도 1번과 성모송 10번, 영광송 1번이 합해 1단을 이루고 이것이 모여 5단 또는 15단이 된다. 그리고 묵상기도의 내용은 구원의 역사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로사리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염경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신비에 일치하신 성모님처럼 인류 구원의 협조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Marialis cultus"에서 로사리오를 복음적 기도라 부르고 로사리오의 핵심은 관상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상없이 로사리오를 혼이 빠진 몸이며, 그렇게 되면 로사리오를 손가락 끝으로 넘기는 것은 형식적인 것을 다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헛소리가 될 위험이 있다." 또한 로사리오의 신비의 묵상은 미사의 훌륭한 준비가 되며, 미사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므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단순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누구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심의 하나이다. 성모님께서도 세계 곳곳에 발현하실 때마다 인류의 구원과 회개를 위해 로사리오 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셨다.

2. 로사리오 성월을 지내는 신앙인의 자세

로사리오 성월은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성모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고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로사리오 성월을 보내는 신앙인은 먼저 구원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다가오심을 느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모님의 모범과 도움을 힘입어 효성스런 자녀로 충실히 머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고, 나와 이웃의 회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모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이요, 성모님처럼 인류 구원의 성실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maria.catholic.or.kr/mi_pr/missa/bbs_view.asp?id=11024&ref=3&menu=4801